

국민학교의 특활영어가 중학교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염 규 을 · 김 귀 석
(조선대학교)

Yum, Kyu-Eul & Kim, Kwi-Suk(1995). A Study on the Effects of English Teaching in Elementary-School Club Activities on English Learning Achievement in Middle School. *Linguistics vol. 3*.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gree to which teaching English in elementary-school club activities can achieve significantly greater English proficiency in middle school than their peers who did not experience being taught English in elementary school. The subjects were 178 middle-school first year students.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FLEX group and non-FLEX group. The FLEX group consisted of 86 students who were taught English in club activities in the elementary school one or two years. The non-FLEX group consisted of 92 students who had not been exposed to English formally until they began to learn English in middle school. To test hypotheses, t-test, 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s, oneway-ANOVA, and chisquare test were conducted. The study concluded as follows: (1)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overall English achievement in middle school. The FLEX group consistently outperformed the non-FLEX group in overall English proficiency. (2)

*이 논문은 1993학년도 한국학술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mong the achievement of Korean, mathematics and English in both groups. (3)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groups of IQ level on English achievement in both groups. (4)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first and the second year students in the degree of interest in learning English.

I. 서 론

문 교부(현 교육부)가 1982년도부터 각 시도별 국민학교에서 조기 영어교육의 일환으로 학교 실정에 따라 클럽활동의 한 영역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지금까지 특별시간에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다. 또한 최근 교육부의 발표를 보면 1997년부터 국민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당 2시간씩 영어를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여 가르치게 되어있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 조기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많았지만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각 국민학교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영어교육을 시행한지 10여년이 지났다.

Schinke-Llano(1985)는 국민학교에서의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세 갈래로 구분하고 있다. 그중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Foreign Language Experience (FLEX)이고, 다른 하나는 Foreign Language in the Elementary School (FLES)이다. 전자와 후자는 교육목표, 교육과정상의 위치 및 교육방법에 따라 구별된다. 전자는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어린이들에게 외국어와 외국문화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내용은 어휘와 문화적 지식에 초점을 두면서 구두기능(말하기와 듣기)을 강조한다. 물론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정규 교과목으로 선택하여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후자는 듣기와 말하기의 능력을 기르고 읽기와 쓰기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Gray, Rhode, Campbell, & Snow, 1984). FLES에서는 외국어가 교과과정의 통합된 일부로서 간주된다. 여러 교과목과 함께 정규 교과목으로 선택되어 가르치고 평가된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학교의 특별활동시간에 가르치는 영어는 FLES라기보다는 FLEX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시행된 국민학교 조기 영어교육을 FLEX라고 간주한다.

이 연구는 국민학교의 조기 영어교육의 찬성과 반대의 어느 입장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체계적인 정책이나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먼저 외국어 학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령과 지능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 보고, 이에 근거

하여 몇 가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이 논문의 주된 연구문제는 국민학교에서 특활시간에 영어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했을 때 국민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받지 않았던 학생들과 비교하여 영어 학업성취도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영어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타 과목(국어, 수학)의 성취도와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가, 지능지수에 따라 분류한 각 집단 간에는 영어 학업성취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학년에 따라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2.1. 외국어교육을 시작하는 최적 연령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최적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연구 보고가 있다. 모국어를 배우는 능력도 어떤 나이가 지나면 한계가 있어서 배우기 어려우며(Lenneberg 1967), 마찬가지로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어떤 나이가 지나면 배우기가 어렵다고 한다(Rosansky 1975). 어린이들은 제2언어를 배울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일부러 연습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모국어의 많은 간섭을 받지 않고 외국어를 배울 수 있다(Anderson 1969). 1956년 미국의 Modern Language Association이 보고한 것을 보면, 제2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최적의 나이는 4-10세라고 한다.

Perskly(1954)와 Girard & Smith(1955)는 어린이들이 12세가 지나면 외국어의 음(音)을 정확하게 모방하는 능력이 감소된다고 하며, Oliva(1969)는 어린이들이 어른들보다 수치감이나 자아의식을 덜 느끼기 때문에 외국어나 외국문화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지 않으며, 외국어를 말할 때 부끄러워 하지 않고, 실수할까 두려워 하지 않으므로 외국어 교육은 8-10세가 좋다고 한다.

Oyama(1976)가 이태리 태생 어린이 6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에서도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온 사람이 사춘기(12~14세) 이후에 이주해온 사람보다 영어의 듣기능력이 더 우수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Krashen & Seliger(1975), 그리고 Rosansky(1975) 등도 외국어의 발음이나 음운의 습득에는 임계연령이 있어서 사춘기 이후에는 완전한 습득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Fathman(1975)은 나이에 따라 제2언어 습득과정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학교교육을 통해 영어를 배우는 6-15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한 실험연구에서 6-10세의 어린이가 11-15세의 어린이보다 발음은 빨리 습득하지만 어형과 문법의 습득은 오히려 13-15세의

어린이가 더 잘 습득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외국어 습득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가 연령이라고 말한다. Ervin-Tripp(1974)이 4-9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보면 나이가 더 많은 어린이들이 나이가 더 적은 어린이들보다 어형과 구문의 습득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Stern(1963)은 7세에서 11세까지의 스웨덴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영어를 40시간 가르치고 난 후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주관적으로 추정해 보면 나이가 더 적은 어린이들(7세)이 더 유리할 것 같지만, 실험기간이 끝날 때 과학적인 절차에 입각해서 주의깊게 평가해 보면 학생들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음과 이해가 더 빨리 향상되었다는 기대하지 않았던 결론을 가져왔다고 보고하였다. 11세의 어린이들이 7세의 어린이보다 더 정확히 그리고 더 빨리 배웠던 것이다(Stern, 1963).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추론해 본다면 7세는 유치원생이거나 국민학교 1학년생인 셈이고 11세는 국민학교 4학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Krashen, Long & Scarcella(1979)도 외국어 학습의 초보단계에서 성인이 어린이들보다 어형과 구문의 습득이 더 빠르지만, 자연적인 상황에서 어릴 때 제2언어를 습득한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 습득한 사람보다 그 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며, 외국어 학습초기에는 성인이 더 빠른 속도로 배우지만 결국 어릴 때부터 배우는 사람이 더 영어를 잘한다고 주장한다. Penfield & Robert(1959)의 주장을 보면, 사춘기 이후에는 두뇌의 유연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우는 최적의 시기는 4-10세이며, 그후 Lenneberg(1967)가 이것을 더 연구하여 사춘기 이전에 뇌의 한 편에 손상을 입을 경우 뇌의 다른 편으로 기능을 전이시킬 수 있어서 언어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외국어도 사춘기 이후에 배우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노력을 요하게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면에서 어린이들이 성인보다 외국어를 꼭 더 잘 배우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Asher & Price(1967)는 듣기에 있어서 성인이 어린이들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Politzer & Weiss(1969)도 처음 발음과 어휘파지력이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증가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며, Ervin-Tripp(1974)은 그의 연구에서 나이가 더 많은 어린이들이 나이가 적은 어린이들보다 수(number), 성(gender), 구문(syntax)을 더 빨리 배운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면,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어린이가 성인보다 모든 면에서 유리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어린이가 언어학습의 모든 면에서 성인보다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를 배

우기 시작하면 학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습득하는 속도가 비록 늦지만 정확한 발음과 구문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유창한 영어의 구사력은 조기 영어교육을 통하여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외국어는 학교에서 조기에 가르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2. 외국어 학습과 지능

학습이론에서는 학습자료를 두뇌로 받아들여서 기억 속에 체계적으로 저장하는 과정을 다룬다. 학습심리학에서 가장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 지능(intelligence), 즉 지식을 습득하고 유지하는 능력과 외국어 학습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된 바는 많지 않다.

전통적으로 지능은 언어적 능력과 논리-수학적 능력 면에서 정의되고 측정되어 왔다. IQ라는 개념은 금세기 초에 Alfred Binet의 연구에서 기인한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영역의 시험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학교에서의 공부나 인생에 있어서의 성공여부가 높은 IQ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Ausubel의 유의적 학습모형에서 지능지수가 높으면, 개념적 계층을 쌓아가고 불필요한 것은 잘라내는데 있어서 특히 유용한 항목을 효과적으로 저장한다고 한다(Brown 1987).

지능을 제2언어학습과 관련해서 볼 때, IQ가 높은 사람이 제2언어를 성공적으로 잘 배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정의에서 보면 지능은 제2언어학습의 성공과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IQ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모두 제2언어를 성공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Gardner(1983)는 지능의 개념에다 제2언어를 성공적으로 배우는데 중요한 속성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음악적 지능(musical intelligence)이 있으면 언어의 억양패턴을 비교적 쉽게 감지하고 표현한다고 설명할 수 있으며, 신체-운동적 양식(bodily-kinesthetic modes)은 언어의 음운을 배우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개인간 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은 의사전달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한다.

지능은 언어능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Oller(1981)는 지능이란 결국 언어에 근거한 것으로서 언어가 지능 자체의 토대가 된다고 한다. 유전학과 신경학이 암시하는 것을 보면, 지능과 언어능력은 동일한 것은 아니더라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능지수가 제2언어 학습의 성공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는 연구결과(Dockrell & Brisseaw 1967; Gardner & Lambert 1972)도 있다. Genesee(1976)는 읽기

시험과 언어용법시험은 IQ와 상관관계가 있지만 듣기, 발음, 어휘, 문법시험과는 일관성있는 관계를 찾지 못했다. 모국어나 제2언어나 지능이라는 깊은 의미에서 보면 의미(meaning)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효과적인 언어학습은 언어의 표면적인 형태와 유의적(meaningful)경험과를 연결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연결의 힘이 곧 지능의 요인이라고 본다. 여기서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언어숙달과 지능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가설

이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영가설의 검증을 통하여 이 연구가설의 타당성을 입증할 것이다.

- 1) 국민학교의 특활시간에 영어공부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았던 학생들 보다 중학교 영어 학업성취도가 높다.
- 2) 국민학교의 특활시간에 영어공부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영어 학업성취도와 타 과목(i.국어 ii.수학)의 학업성취도와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 3) 국민학교의 특활시간에 영어공부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들의 지능수준에 따라 영어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다.
- 4) 학년에 따라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도에는 차이가 있다.

3.2. 연구대상

영규율(1995)은 남녀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2학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게 되므로 그 동안 다른 요인이 영어학습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2학년 보다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 국민학교의 특활영어가 중학교 영어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타당성 있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민학교 다닐 때 특별활동 시간에 영어를 배웠던 경험이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영어를 배운 경험이 없는 중학교 동 학년 학생들을 조사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도시 중학교에 소재하는 남학교 1개교와 여학교 1개교를 선정하였다. 국민학교에서 조기 영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실험반으로 하였고, 같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지만 국민학교 다닐 때 조기 영어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들을 통제반으로 하였다. 국민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받았던 학생수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 집단의 대상수를 동수로 하기 위하여 남학교에서 89

명, 여학교에서 89명 모두 178명을 무선표집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학교마다 실험반(FLEX)으로 43명, 통제반(non-FLEX)으로 4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진행을 2학기 중에 실시하였기 때문에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서 영어공부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FLEX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학교에서 영어공부를 하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 “선생님 또는 부모님이 권해서 했다”고 응답하는 학생이 남학생의 경우 12명(27.93%), 여학생의 경우 18명(41.8%)이었고, “영어를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영어공부를 하게다”고 응답하는 학생중 남학생이 21명(48.8%), 여학생이 23명(53.4%)이었다. 그 외에 “영국이나 미국이 좋아서” 공부한 학생이 약간명있었고 “친구가 하니가 따라서 했다”고 응답한 학생도 조금있었다. 대체로 남학생들과 여학생 모두 영어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영어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염규을(1995)에서는 여학생들의 경우 선생님 또는 부모님이 권해서 영어공부를 하게됐다는 학생들이 더 많았었다. 이와 같이 순위가 바뀐 것은 학년에 따라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3. 조사자료

영어 학업성취도는 듣기, 어휘 문법, 독해 그리고 종합시험 등 다섯 분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어휘, 문법, 독해분야에 관한 능력측정은 연구자가 평가도구를 제작하여 실시하였다. 듣기능력은 1993년 11월 교육부가 주관한 ‘영어듣기’ 시험에서 얻은 점수(20점 만점)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종합시험도 1993년 광주시가 주관한 ‘기준학력평가’의 득점(100점 만점)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시험에서 얻은 득점을 학업성취도로 가정한다.

타 과목(i. 국어 ii. 수학)의 학업성취도는 1993년 전남도 및 광주시가 주관한 일체고사에서 얻은 점수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평가도구의 신뢰도는 K-R 20으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 어					국어	수학
듣기	어휘	문법	독해	종합		
.763	.684	.752	.627	.845	.743	.624

지능지수(IQ)에 대한 정보는 연구대상자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 실시한 것(지능종합검사: 황정규)을 활용하였다.

흥미도 검사는 필자가 만든 문항으로 5점 척도에 의해서 측정하였다. 첫번째 검사가 끝나고 2주 후에 동일한 문항으로 반복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재검사법(test-retest method)에 의한 신뢰도는 $r=.82$ 이었다.

3.4. 자료분석

이 논문의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의 처리는 SPSS/PC+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다. FLEX집단과 non-FLEX집단 간에 각 기능별 영어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t-검증을 하였다. 각 집단별 영어 학업성취도와 타 과목(i. 국어 ii. 수학)과의 관계를 밝혀보기 위해서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r)를 산출하였다. 참여자들의 지능지수를 상·중·하의 세 범주로 분류하여 각 집단 간에 영어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원분산분석(ANOVA)을 하여 검증하였다. 학년에 따른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도의 차이는 χ^2 를 산출하여 검증하였다. 가설검증에 있어서 영가설의 기각여부를 결정하는 유의수준은 $\alpha < .05$ 로 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결과분석

1) H_{11} : 국민학교의 특활시간에 영어공부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았던 학생들 보다 중학교 영어 학업성취도가 높다.

[표 1] 평균, 표준편차, t-값 및 유의도 (남학생)

		N	M	S.D.	t	p
듣기	FLEX	43	17.46	1.89	1.61	.111
	non-FLEX	46	16.80	1.97		
어휘	FLEX	43	15.23	2.87	1.46	.132
	non-FLEX	46	13.35	3.29		
문법	FLEX	43	15.44	2.38	.51	.612
	non-FLEX	46	15.76	3.40		
독해	FLEX	43	17.53	1.35	1.79	.072
	non-FLEX	46	16.13	2.80		
종합영어	FLEX	43	78.02	12.78	2.87	.005
	non-FLEX	46	72.43	17.35		

남학생의 경우에 있어서 국민학교 특별활동 시간에 영어공부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집단(FLEX)과 영어공부를 한 경험이 없는 학생집단(non-FLEX)이 중학교에 진학했을 때 그들의 영어성적을 듣기, 어휘, 문법, 독해 그리고 종합영어로 나누어 측정 한 결과는 [표1]과 같다. 듣기, 문법 그리고 독해분야에서 두 집단간의 평균 성적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어휘($t=2.87, p=.005$)와 종합영어($t=2.77, p=.007$)에 있어서만 두 집단의 평균성적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어성적을 듣기, 어휘, 문법, 독해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 한 것은 그 측정의 신뢰도 뿐만 아니라 타당도에 있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신뢰할 수 있고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종합영어 측정을 토대로 가설을 검증해 본다면 영가설은 기각되게 된다.

따라서 남학생의 경우에서 국민학교의 특활영어시간에 영어공부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았던 학생들 보다 중학교 영어 학업성취도에서 더 높은 성적을 보인다는 연구가설을 지지할 수 있게 된다.

[표 2] 평균, 표준편차, t-값 및 유의도 (여학생)

		N	M	S.D.	t	p
듣기	FLEX	43	17.83	1.84	1.45	.150
	non-FLEX	46	17.23	2.04		
어휘	FLEX	43	14.56	2.73	2.79	.007
	non-FLEX	46	13.20	1.82		
문법	FLEX	43	16.67	1.90	3.94	.000
	non-FLEX	46	15.04	2.00		
독해	FLEX	43	17.63	1.62	3.57	.001
	non-FLEX	46	15.89	2.78		
종합영어	FLEX	43	80.95	12.59	3.08	.003
	non-FLEX	46	71.59	15.79		

[표2]는 여학생의 경우에 있어서 국민학교 특별활동 시간에 영어공부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집단(FLEX)과 영어공부를 한 경험이 없는 학생집단(non-FLEX)이 중학교에 진학했을 때 그들의 영어성적을 듣기, 어휘, 문법, 독해 그리고 종합영어로 나누어 측정 한

결과이다. 단지 듣기 부분에서만 두 집단간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있지 않으나 어휘($t = 2.79, p = .007$) 문법($t = 3.94, p = .000$)과 독해($t = 3.57, p = .001$) 그리고 종합영어($t = 3.08, p = .003$) 면에서 두 집단간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유의적인 차이는 문법, 독해, 종합영어 그리고 어휘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보다는 여학생의 경우에 있어서 국민학교에서 조기 영어교육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중학교 영어 학업성취도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국민학교의 특활시간에 영어공부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았던 학생들보다 중학교 영어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연구가설을 남학생 집단보다는 여학생 집단에서 더 설득력있게 지지할 수 있다.

2) H_{12} : 국민학교의 특활시간에 영어공부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영어 학업성취도와 타 과목 (i.국어 ii.수학)의 학업성취도와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표 3] 영어, 국어, 수학의 평균 및 표준편차

		영어			국어			수학		
		N	M	S.D.	N	M	S.D.	N	M	S.D.
FLBR	남	43	79.19	10.91	43	87.12	6.39	43	73.21	14.88
	여	46	72.43	17.31	46	83.93	7.64	46	68.61	17.38
non-FLB	남	43	80.93	12.64	43	87.63	6.65	43	72.71	14.97
	여	46	70.13	17.51	46	83.83	7.33	46	65.91	17.08

[표3]의 기술통계에 입각해서 각 집단별로 영어와 국어 그리고 영어와 수학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해 낼 수 있었다. 각 집단별 과목들간의 상관계수는 [표4]와 같다.

[표 4] 집단별 각 과목 성취도와 상관관계

		영어-국어	영어-수학
FLEX	남	.74*	.76*
	여	.68*	.71*
non-FLEX	남	.53*	.73*
	여	.58*	.52*

*p = .0000

[표4]를 보면 각 집단별 남녀 모두 영어와 타 과목(국어, 수학)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non-FLEX 집단 보다는 FLEX집단에서 각 과목들 간에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Flex집단에 있어서 남학생의 경우를 보면 영어와 수학과와의 상관관계($r = .76, p = .0000$)가 영어와 국어와의 상관관계($r = .74, p = .0000$)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서도 남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어와 수학과와의 상관관계($r = .71, p = .0000$)가 영어와 국어와의 상관관계($r = .68, p = .0000$)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LEX집단에 있어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여학생의 경우 non-FLEX집단 보다는 FLEX집단에서 훨씬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민학교에서 조기 영어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중학교에서도 영어와 수학의 학업성취도가 좋다는 것을 반영해주는 것이다.

과목특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영어와 국어와의 상관관계 보다는 영어와 수학과와의 상관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중학교 수준에서는 과목특성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각 집단별 과목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가설이 기각되고 연구가설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즉, 국민학교의 특활시간에 영어공부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영어 학업성취도와 타 과목(국어, 수학)의 학업성취도와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 H₃ : 국민학교 특활시간에 영어 공부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들의 지능수준에 따라 영어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다.

남학생들의 경우 FLEX집단과 non-FLEX집단에서 그들의 지능 수준에 따라 영어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결과요약은 [표 5]와 같다.

[표5] 지능수준에 따른 영어 학업성취도의 평균, F 및 p 값 (남학생)

성취도 시험	지능수준									
	FLEX					non-FLEX				
	성	중	어	F	p	성	중	어	F	p
듣기	17.0	17.9	16.9	1.41	.254	18.2	17.2	15.8	5.96	.003
어휘	17.4	15.3	12.7	9.54	.000	16.0	13.8	11.8	6.24	.004
문법	17.5	14.7	15.0	6.08	.004	18.5	15.6	14.7	3.92	.02
독해	17.9	17.6	17.0	.695	.505	18.6	15.6	15.3	4.43	.01
종합영어	81.5	81.3	71.9	4.13	.002	86.2	71.3	67.3	3.63	.034

남학생들의 경우 FLEX집단을 보면 듣기($F_{2,40}=1.417, p=.2543$)와 독해($F_{2,40}=.695, p=.5052$)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어휘($F_{2,40}=9.547, p=.0004$), 문법($F_{2,40}=6.086, p=.0049$) 그리고 종합영어($F_{2,40}=4.13, p=.0027$)에서 각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능수준에 따라 분류한 각 집단들은 어휘, 문법, 종합영어의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각각 다른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다.

non-FLEX집단에 있어서는 듣기($F_{2,43}=5.969, p=.0052$) 어휘, 문법($F_{2,43}=3.924, p=.0272$), 독해($F_{2,43}=4.434, p=.0177$) 그리고 종합영어($F_{2,43}=3.634, p=.0349$)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들의 경우 FLEX집단과 non-FLEX집단에서 그들의 지능 수준에 따라 분류한 각 집단 간의 영어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결과요약은 [표6]과 같다.

[표6] 지능수준에 따른 영어 학업성취도의 평균, F 및 p값 (여학생)

성취도 시험	지능수준									
	FLEX					non-FLEX				
	상	중	하	F	p	상	중	하	F	p
듣기	18.77	17.98	15.88	8.138	.001	18.83	17.29	16.00	3.986	.0258
어휘	15.77	14.64	12.38	4.493	.0174	14.50	12.98	13.11	1.860	.1680
문법	17.00	17.04	15.13	3.694	.0337	17.17	14.83	14.33	4.809	.0130
독해	18.54	17.53	16.23	6.186	.0046	18.17	15.87	14.44	3.595	.0360
종합영어	88.31	83.03	63.00	20.298	.0000	90.33	71.61	58.22	10.840	.0002

여학생들의 경우 FLEX집단을 보면 지능수준에 따라 분류한 각 집단 간에 모든 분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영어($F_{2,40}=20.298$, $p=0000$)에서 가장 유의적인 차이를 볼 수 있으며 문법($F_{2,40}=4.329$, $p=.0217$)에서는 유의수준이 약간 떨어짐을 알 수 있다. non-FLEX집단에서는 어휘($F_{2,40}=1.860$, $p=.1680$)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듣기($F_{2,43}=3.986$, $p=.0258$), 문법($F_{2,43}=4.809$, $p=.0130$), 독해($F_{2,40}=3.595$, $p=.0360$) 그리고 종합영어($F_{2,43}=10.840$, $p=.0002$)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학생들의 경우 FLEX집단에서 지능수준에 따라 분류한 각 집단간에 듣기와 독해분야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지만 나머지 분야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FLEX집단에서 모든 분야에서 각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non-FLEX집단에서는 어휘 분야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듣기, 문법 그리고 종합영어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국민학교에서 특활시간에 영어공부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건 간에 지능수준과 영어 학업성취도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 H₁₄: 학년에 따라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도에는 차이가 있다.

학년에 따라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염규을(1995)에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흥미도와 이 연구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흥미도와의 관계

를 밝힘으로써 알 수 있을 것이다.

남학생들의 경우 FLEX집단과 non-FLEX집단에서 학년에 따라 그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결과요약은 [표7]과 같다.

[표7] 학년별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도 차이 검증을 위한 결과 요약(남학생)

학년	흥 미 도									
	FLEX					non-FLEX				
	상	중	하	X ²	p	상	중	하	X ²	p
1	25 (58.1)	15 (34.9)	3 (7.0)	1.37	.5052	12 (27.9)	19 (44.2)	12 (27.9)	.04	.9765
2	18 (51.4)	16 (45.7)	1 (2.9)			9 (25.7)	16 (45.7)	10 (28.6)		

* 칸 위의 숫자는 빈도수이며, ()의 숫자는 백분률임.

남학생들의 경우 FLEX집단을 보면 1학년과 2학년에서 흥미도가 상인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하인 학생은 각각 3명과 1명으로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non-FLEX집단의 경우 1학년에서는 흥미도가 중인 학생이 많았으며 상과 하는 동수였다. 2학년에서도 중인 학생의 수가 가장 많았다.

남학생의 경우 학년에 따라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도에는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고 연구가설을 받아 들이게 된다. 결론적으로 학년에 따라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도에는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표8] 학년별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도 차이 검증을 위한 결과 요약(여학생)

학년	흥 미 도									
	FLEX					non-FLEX				
	상	중	하	X ²	p	상	중	하	X ²	p
1	27 (62.8)	15 (34.9)	1 (2.3)	1.62	.4448	9 (19.6)	29 (63.0)	8 (17.4)	1.50	.4726
2	19 (54.3)	16 (45.7)	/			9 (25.7)	23 (65.7)	3 (8.6)		

* 칸 위의 숫자는 빈도수이며, ()안의 숫자는 백분률임.

여학생들의 경우 FLEX집단을 보면 남학생들의 경우와 같이 1학년과 2학년 모두 흥미도가 상인 학생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하인 학생은 2학년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non-FLEX집단의 경우 1학년과 2학년 모두 흥미도가 중인 학생이 가장 많았다. 상과 하는 비슷한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학년에 따라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도에는 차이가 없다는 기각하지 못하고 연구가설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따라서 여학생의 경우에도 학년에 따라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도에는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4.2. 논의

중학교 1학년 남·여학생중에서 그들이 국민학교에서 특활시간에 영어공부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았던 집단을 표집으로 선정하여 각 집단의 중학교 영어 학업성취도를 측정하였다.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듣기, 어휘, 문법 그리고 독해분야에서 두 집단간의 평균성적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종합영어에 있어서는 두 집단의 평균성적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를 보면 듣기와 어휘부분에서는 두 집단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문법과 독해 그리고 종합영어에서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보다는 여학생의 경우에 있어서 국민학교의 특활시간에 조기영어교육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 중학교 영어학업성취도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는 외국어를 조기에 가르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Anderson 1969; Perskly 1954; Girrard & Smith 1955; Oliver 1969 Krashen & Seliger 1975; Rosansky 1975)의 견해를 완전히 지지할 수 있을 정도로 치밀한실험적 연구는 못되었지만, 적어도 조기 영어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중학교에 진학하여 다른 학생들에 비해 더 좋은 영어성적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것은 부분적이긴 하지만 조기 영어교육의 효과를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Penfield & Robert(1959)가 주장했듯이 사춘기가 지나면 두뇌의 유연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우는 최적의 시기는 4-10세라고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학교 4학년부턴 외국어를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다. 물론 조기에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한다고해서 외국어의 모든 분야에서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습득하는 속도가 늦더라도 정확한 발음과 구문을 더 잘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학교에서 특활시간에 영어공부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영어 학업성취도와 타 과목(국어, 수학)의 학업성취도와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의 남녀 모두 영어와 국어, 영어와 수학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FLEX 집단에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경우에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볼 수 있었으며 영어와 국어보다는 영어와 수학과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교과목의 특성으로 보아 영어와 수학보다는 영어와 국어와의 상관관계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것은 중학교 수준에서는 과목의 특성보다는 특활영어시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습 열의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국민학교의 특활시간에 영어공부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건 그렇지 않는 학생들이건 그들의 지능에 따라 영어 학업성취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LEX집단에서 여학생의 경우에 가장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지능과 언어능력은 동일한 것은 아니더라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Oller(1981)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지능이 제2언어 학습에서 중요한 요인이라는 Pimsleur(1962)의 가정과, 지능지수가 제2언어 학습의 성공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는 연구결과(Dockrell & Brisseaw 1967; Gardner & Lanbert 1972)와도 일치한다. Genesee(1976)는 읽기시험과 언어용법시험은 IQ와 상관관계가 있지만 듣기, 발음, 어휘, 문법시험과는 일관성있는 관계를 찾지 못했다. 외국어를 익히는 것과 지능은 의미(meaning)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언어의 표면적인 형태와 유의적인 경험과를 연결하는 것이 언어학습이라고 볼 때 그러한 연결의 힘이 지능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어학습과 지능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지능은 제2언어학습의 성공과 별로 관계가 없다는 전통적인 견해도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견해와는 달리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지능지수에 따라 영어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지능지수가 높은 학습자는 그 만큼 외국어를 성공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의 정도를 살펴보면 남녀학생 모두 FLEX 집단에서 2학년 보다는 1학년 학생들이 더 흥미를 가지고 영어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영어공부에 대한 흥미가 적어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학교 때에는 재미있게 영어공부를 시작했지만 상당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흥미가 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영어학습의 효과는 학습에 대한 흥미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5. 결 론

이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학교의 특활영어시간에 영어공부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았던 학생들보다 중학교 영어 학업성취도에서 높은 성적을 보였다. 남학생 집단보다는 여학생집단에서 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집단에서는 듣기, 어휘, 문법 그리고 독해분야보다는 종합영어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집단에서는 듣기분야만 제외하고는 문법, 독해 그리고 종합영어분야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국민학교의 특활영어가 중학교 영어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으로 국민학교에서 조기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학교에 진학했을 때 더 효율적인 영어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둘째, 국민학교의 특활시간에 영어공부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영어 학업성취도와 국어 및 수학의 학업성취도와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특활시간의 영어공부에 참가한 학생들은 국어 보다는 수학의 학업성취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조기 영어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다른 과목의 학습에도 열성적이였다.

셋째, 국민학교의 특활시간에 영어공부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건 그렇지 않는 학생들이건 그들의 지능에 따라 영어 학업성취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LEX집단에서 여학생의 경우에 가장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지능이 외국어 학습의 성공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넷째, 학년에 따라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도의 차이는 없었다. 남학생의 경우에 FLEX 집단에서는 2학년 보다는 1학년이 더 영어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니었다. 그러나 non-FLEX 집단에서는 학년에 따라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도가 매우 비슷했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남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FLEX집단에서 2학년 보다는 1학년이 더 영어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non-FLEX집단에서는 학년에 따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문제점도 있었다. 보다 많은 학생들을 표집에 포함시키지 못한 점과 측정도구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였다. 차후의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더욱 신뢰로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학교에 있어서의 조기 영어교육의 효과는 중학교 영어 학업성취도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국민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 및 교수방법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염규율.(1995). 국민학교 특활영어의 학습효과에 관한 연구. 외국문화연구, 제18집. 조선대학교.
- 황정규.(1993). 지능종합검사. 대한 사립중고등학교장회.
- Andersson, T. (1969). Foreign Languages in the Elementary School. Austin, Texas: University of Texas Press.
- Brown, H.D. (198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2nd ed.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Dockrell, W.B. & Brousseau, J.F. (1967). The correlate of second language learning by young children. Albert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3, 295-298.
- Ervin-Tripp. (1974). Is second language learning like the first? TESOL Quarterly, 8. 125-39.
- Fathman, A. (1975).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second language productive ability. Language Learning, 25. 245-253.
- Gardener, H. (198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New York: Basic Books.
- Gardner, R. & Lambert, W.E. (1972). Attitude and Motivatio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Rowley, Mass.: Newbury House.
- Girard, P. & Smith, P. (1955). Foreign languages in the elementary school. National Educational Association Journal, 34. 182-201.
- Gray, T., Rhode, N., Campbell R., & Snow, M. (1984). Comparative Evaluation of Elementary School Foreign Language Programs. Final report. Washington, DC: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 Genesee, F. (1976). The role of intelligence in second language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ing* 26:2, 267-280.
- Krashen, S. & Seliger, H. (1975).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formal instruction. *TESOL Quaterly*, 9. 174-191.
- Krasen S., Long, M. & Scarcella R. (1979) Age, rate and eventual attainmen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ESOL Quaterly*, 13.
- Lenneberg, E.H.(1967). *Biological Foundation of Language*.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 Oliva, P. F. (1969).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Oller, J.W. (1981). Language as intelligence? *Language Learning* 31, 465 - 492.
- Oyama, S. (1976). A sensitive period for the acquisition of a non-native phonological system.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5.
- Penfield, W. & Roberts, L. (1959) *Speech and Brain Mechanism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erskly, R. L. (1954). Foreign languages in the elementary school. *The Modern Language Journal*, 38(1), 28-36.
- Pimsleur, P. et al. (1962). Student factors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Modern Language Journal* 46, 160-169.
- Rosansky, E. J. (1975). The critical period for the acquisition of language: some cognitive developmental considerations. *Working papers on bilingualism*, 6.
- Schinke-Llano, Linda. (1985). *Foreign Language in the Elementary School: State of the Art*.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Stern, H. H.(1963). *Foreign Languages in Primary Education: the Teaching of Foreign or Second Languages to Younger Children*. Hamburg: UNESCO Institute of Education.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염규을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
조선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과
김귀석